

광주, 민주당 후보 독주 예상 전남, 시장·군수 8~9곳 접전

지방선거 D-7
정당별 기초단체장 판세 분석

6·13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하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장 선거는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3·4·5면)

광주는 대부분 민주당 후보가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남 서부지역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야당과 무소속 등 비(非)민주당 후보들의 약진도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각 정당이 분석한 판세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5개 자치단체장 선거는 민주당의 우세 속에 현직 구청장이 출마한 광주 서구와 동구가 치열한 접전지역으로 꼽힌다. 서구는 임우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민주당 서대석 후보와 일대일 대결을 펼치고 있고, 동구는 현직 김성환 구청장이 민주당 평화당 우을 입고 민주당 임택 후보와 바른미래당 김영우 후보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광주 서구와 동구는 현역 프리미엄이 민주당 바람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광주 북구정당 선거도 민주당 문인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만, 현역 국회의원 2명이 민주당 평화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평화당이

광주, 민주당-현직 대결

서구·동구는 접전 펼칠 듯

전남, 서부지역에서

야당·무소속 약진 두드러져

은방 후보의 약진도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판세로는 광주지역의 경우 도심지역 특성상 민주당 바람이 우세할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전남지역은 광주와 달리 일부 지역에서 혼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전남 22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신안과 장성 등 2곳을 열세 지역으로, 목포와 해남·고흥·보성·광양·강진 등 6곳을 접전 우세지역으로 꼽고 있다. 광양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남 서부권 지역 대부분이 접전 지역에 포함됐다. 전남 22개 자치단체장 선거 중 8곳(36%)이 사실상 접전 지역인 셈이다.

신안과 장성, 목포, 광양 등 4곳은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현직 단체장들이 현재 선거판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남과 보성은 전직 군수들이 사법처리되면서 일찌감치 '무주공산'

이었다는 점에서 조기에 박당 민심을 잡다려는 후보의 승리가 예상된다. 고흥과 강진에서는 평화당 조직이 만만치 않아 기존 민주당 바람을 막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은 자체 분석 결과 목포와 해남·고흥·강진·함평·화순·신안·진도·구례·곡성·나주·무안 등 13곳을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선거 막판 총력전을 펼 예정이다. 평화당은 또 순천과 여수, 광양, 보성, 장흥 지역은 무소속 후보가 우세한 지역으로 꼽고 있다.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도 점쳐진다. 과거 민주당 일당 독주 상황에서도 광주와 전남지역 전체 27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6~7명의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된 통계를 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출신 후보들의 약진도 기대된다. 현재 광양과 신안, 순천, 보성, 구례, 장흥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정당 관계자는 "인구가 밀집된 광주와 달리 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숫자가 적다는 점에서 조직 선거가 가능함에 따라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히 작용하는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초등학생들 모심기 생태교육

무등산 자락 숲속 생태학교인 광주동초등학교·충효초교(교장 신미숙) 1~2학년 학생과 교직원들이 5일 오전 북구 충효동 충효초교 앞 학교 논(2000㎡)에서 모내기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소유 논에서 봄철 모 심기부터 가을철 벼 수확까지 벼의 모든 성장과정에 단계별로 참여하는 생태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북미정상 12일 오전 10시 첫 회담

2차·3차 회담 가능성

비핵화 등 쟁점 간극 좁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첫 북미정상 회담이 한국시간으로 12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관련기사 2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잠정적으로 '첫 회담'은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이 '첫 회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여러 차례 추진할 의사를 밝힌 것의 연장선에 놓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싱가포르 회담을 '과정'(process)으로 표현하며 "나는 한 번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한 번에 성사된다고 하지 않았다"며 2차,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싱가포르와 판문

점에서 열리는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싱가포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비무장지대(판문점)에서는 외교적 협상이 계속됐다"며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의미 있는 진전(significant progress)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그들은 긍정적이었다. 우리는 싱가포르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비핵화 방식과 시기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펼쳐진 판문점 실무협상에서 양측이 간극을 상당히 좁힌 것으로 보인다.

샌더스 대변인은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 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대북제재)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한 후 "최대의 압박"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 등 발언을 내놓은 후 제재 의지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한 것이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받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과 관

련해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읽은 후 좀 더 고무됐느냐"는 질문에는 "좋은 진전이 있었다. 대통령은 그의 안보팀으로부터 북한에 관한 브리핑을 매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월 김정은 위원장을 러시아로 초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만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자신의 견해를 싱가포르에서 그(김 위원장)에게 직접 알릴 것이다. 우리는 계속 비핵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일보

6·13 격전지를 가다 - 광양시
-현직 프리미엄 vs 힘있는 여당 ▶5면
전라도 1000년 인물 - 다산 정약용
-실학 집대성한 조선의 다빈치 ▶18면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 곧 체결

합작법인 설립·위탁생산 차종 등 중요 사안 의견 접근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 설립과 위탁 생산 차종·규모·기간 등 중요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있어 조만간 투자 협약

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장 착공 시기를 올해 내로 못박고 있는데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위탁 생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5일 "검토해야 할 사안이 상당히 현대차와 매주 3차례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차가 생산하지 않고 있는 '경제성을 갖춘 신차'로 1000cc 미만 SUV 경차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SUV 경차의 시장 수요, 판매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인건비 낮추는 방법으로 수익을 높이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면 현대차의 위탁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탁 차종이 무엇보다 이번 협상의 핵심"이라며 "잘 팔리는 차종이어야 하며, 그레아만 합작법인에 투자하는 시와 투자자들이 이른 시간 내에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합작법인의 규모 역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시, 현대차 등이 투자를 결정하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나 지역기업, 단체 등에서도 투자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시는 현대차와 투자협약 이후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쭈~우~욱~

일본 기타큐슈, 오사카, 다낭, 방콕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월 27일 이후 [화(4일), 금(3일), 일(3일)] 정기편 확정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정기편 확정 기간 한정 특가(6/5~7/20) -

- ◆기타큐슈, 뱃바,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폭격] 499,000원
- ◆기타큐슈, 뱃바,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폭격] 599,000원
- ◆기타큐슈 아마구치 3일 [폭격] 549,000원 ※ 불포항여행·무안공항수송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무안 출발/오전출발**

- ◆오사카, 나라, 교토 OR USJ 3일(세미더블) 499,000원~
- ◆오사카, 나라, 교토 실속(세미더블) 699,000원~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4일 899,000원~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마프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오마치 & 알펜루트 & 마프모토 관광

7월 28일 부터(총5회) [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 2박3일 899,000원~ ◆ 3박4일 1,198,000원~

여름방학 가족여행 무안 → 돗토리(요나고) 직항 전세기

7월 27일 부터(총5회) [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 2박3일 699,000원(ALL 포함) ◆ 3박4일 799,000원(ALL 포함)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총18항차]

7월 18, 21, 24, 25, 27, 28, 30, 31 8월 2, 3, 5, 6, 8, 9, 11, 12, 14, 17

[폭격] 준특급+특급 1,290,000원 [고폭격] 특급 1,450,000원
[골프] 특급 1,790,000원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블라디/하바롭 전세기 [총10항차]

7월 20, 23, 26, 29 8월 1, 4, 7, 10, 13, 16

[알뜰] 3성급 1,090,000원 [실속] 5성급+3성급 1,190,000원
[폭격] 5성급 1,350,000원 ※ 국성수가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세부 직항 전세기 [팬퍼시픽 연합]

6월 30일 부터(수(3박4일) / 토(4박5일))

- ◆ 세부 정통 패키지 (3박4일) 599,000원~ / (4박5일) 649,000원~

• 팬퍼시픽항공 왕복항공권 - 음료 서비스 / 기내 담요 서비스 • 입금 / 준특급 / 특급 리프트 3박(2인실 기준), 1인실 여행보험
• 특석 2회, 리프트석 3회, 코코넛 오일(오 드라이빙) & 코코넛 비누 1SET(봉투) • 필리핀 현지 공항세(70페소/인당) 포함
• 체험다이빙 무료강습, 라푸라푸 디스커버리투어, 민속공연 관람, 마사지
• 시내관광(마젤란의 십자가, 산페드로요새 또는 마탄성당, 마탄슈라인 등)
• \$80 상당의 아일랜드 호핑투어(비무안 중심) 포함 ※ 출발 날짜별 요금 및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합니다.

광주 ↔ 제주도

- ◆ 2박3일(주중) 299,000원~ ◆ 2박3일(주말) 379,000원~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5월 18일(금) 이후 [화(3박4일), 금(3박5일)] 쭈우욱~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텔)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배개, 비디오 상영

[특 가] 다낭 · 후에 · 호이안 4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6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79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969,000원~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5월 2일 부터(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 [준특급] 649,000원~ ◆ [특급] 699,000원~ (6/20(수) 출발 확정)

낭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뢰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여행상품: 1인당, 국내상품 5만원, 해외상품 10만원), 관광상품 5만원,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인당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경비 1인당 10만원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항공권, 기사/가이드, 호텔, 숙박, 식음료, 차량 렌탈, 기타)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